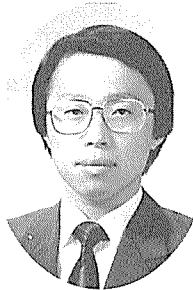


# 북한의 석유개발과 남북 석유협력



정우진

〈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지**난 10월 20일 현대 정주영 명예회장이 발표한 북한 서안만 지구 석유개발 사업에 대해 회의적 시각이 높은 것 같다.

그러나 본래 석유개발 사업은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기대도, 실망도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이번 발표를 통해 볼 때 북한이 석유개발에 대해 상당한 집념을 갖고 있는 것만은 확실한 것 같다. 북한이 군소업체들이지만 캐나다 및 호주, 스웨덴 등 서방기업들과 손잡고 탐사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작년 10월 북한당국은 일본에서 친절하게(?) 「조선유전 설명회」까지 개최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온 북한의 투자유인 방식이 아니다. 또, 비록 결실은 못 맺었지만, 과거 수차례 대륙붕에서 석유나 가스를 발견했다고 발표하기도 하였다.

북한은 남한보다 먼저 석유탐사를 시작했다. 북한이 최초로 석유탐사를 착수한 것은 1957년 구소련과 루마니아의 기술 및 장비지원을 받아 함경도 아오지 지역에서 지질조사 및 시굴탐사를 실시한 것 부터로 알려지고 있다. 그후 '90년대 이전 구소련이 붕괴되기 전에는 주로 구소련과 중국의 지원하에 북한 서해의 남포 앞바다와 동해의 흥남시 앞바다를 중심으로 하는 대륙붕지역에서의 탐사를 수차례에 걸쳐 실시하였다. 구소련과 중국외에도 '80년대 중반부터는 이란의 리워드(Leeward)사와 호주의 메리디안(Meridian)사가 서해 대륙붕의 탐사에 참여하였으나 실패로 끝났다.

'90년대 이후에는 구소련의 붕괴, 김일성 사망 등 정치적 변혁에 따라 다소 소강상태를 보이다 1995년 이후부터는 석유개발 탐사에 서방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 주요 유전개발회사에 탐사제의를 해오고 있다.

지금까지 북한의 석유탐사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서방기업들은 스웨덴의 타우루스, 캐나다의 켄텍과 소코사, 호주의 비치사 등이며 아직까지 활동중인 업체들도 있다. 그러나 이들은 대부분 군소 개발업체로서 주요 석유메이저들이 북한의 유전개발에 참여했다는 소식은 아직 들리지 않고 있다.

석유개발에 대한 집념에 비해 북한의 석유산업은 보잘 것 없다. 함경북도 웅기에 승리화학공장과 평안북도 백마에 봉화화학공장이라는 두 개의 정유공장이 있지만, 석유정제능력을 모두 합해 보아야 하루 7만배럴 규모에 불과하다. 하루 240만 배럴의 정제능력을 가진 남한의 3%도 안되는 수준이다. 이러한 소규모 정제설비도 북한은 제대로 가동한 적이 별로 없다.

특히 90년대 들어 구소련이 붕괴되고 중국이 시장경제로 경제시스템을 전환하면서 이들은 「시장가격의 절반에 구상무역 형태」로 북한에 공급해주던 원유에 대해 「시장가격에 경화」를 요구함에 따라 원유의 수입이 크게 감소해 지금은 정제설비 가동율이 30%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의 석유산업이 이렇게 보잘 것 없는 것은 북한의 경제력과도 관련이 있지만 그것보다는 북한의 에너지정책이 이른바 그들의 경제사회 이념과 같은 「자력갱생」인데 더 큰 원인이 있다.

해방 이후 북한이 일관되게 추진해온 에너지정책은 자체 에너지의 최대 이용, 수입 에너지의 최소화이다. 이런 기본 정책에 따라 북한은 경제성에 관계없이 북한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는 석탄을 증산하

고 이를 최대한 이용하는데 역점을 두어왔다.

반면에 북한에 매장되어 있지 않는 석유는 석탄으로 대체하기 어려운 수송용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주로 수입되었으나 그 수입량을 억제해 왔다. 따라서 북한의 석유소비처는 수송용과 일부 소규모 석유화학용 원료, 그리고 북한내 단 하나의 석유화력인 웅기발전소 연료로 국한되어 왔다.

북한당국도 산업활동에 있어 석유의 중요성은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석유를 수입하면 에너지자급율이 떨어져 「자력갱생」이라는 그들의 기본 에너지정책과 배치된다. 그동안 북한이 가능성이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석유개발에 대한 집념이 높았던 것은 석유의 국내 생산이 그들의 정책이념과 경제적 이익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돌파구였기 때문인 것 같다.

현대가 발표한 것과 같이 앞으로 북한에서 공동으로 유전개발을 추진하려면 걸려있는 난제들이 많다. 먼저 매장량과 경제성 확인절차가 있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상당한 투자비가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 북한측은 현대에 기초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자료로서 탐사불가리는 결정을 일찍이 내릴 수 있다면 유전개발의 추진기회를 잃어 아쉽지만, 큰 투자손실은 없게 된다.

그러나 추가 조사를 위해 시추공을 뚫는 등 본격적인 탐사가 진행되면 수천달러에서 수억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는 조광권 및 생산물배분 방식, 투자보장, 인

력교류 등 사업추진에 합당한 법·제도 설정에 대해 북한측과 원만한 타협점을 찾을 수 있는 가이다. 투자자와 유전 소유국과의 전형적인 개발계약들은 대부분 서방방식으로 되어 있어 이를 북한측이 얼마나 수용할 수 있을까 의문이다.

셋째는 만약 개발지역에서 대형 유전이 발견될 때 우려되는 중국측과의 영유권 분쟁이다. 북한 서안만 지구는 중국과 인접해 있어 심해의 매장지역이 중국 영토까지 연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 석유 매장 가능성이 높은 동지나해의 조그만 무인도인 스프라트리(*Spratly*)와 파라셀(*Paracell*) 군도를 놓고 전개되고 있는 중국과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 6개국과의 첨예한 영유권 분쟁이 그 좋은 예라 하겠다.

따라서 기왕에 해결되어야 할 과제가 많은 석유개발을 놓고 북한측과 밀도있는 대화까지 할 것이라면 석유산업 전반과 연계시켜 보다 효과적인 남북 석유 협력으로 진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북한의 석유소비는 남한의 2-3%에 불과하지만, 북한이 조금만 유연한 경제정책으로 선회한다면 석유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가 예상된다. 북한의 유일한 화석자원이며 최대 에너지공급원인 석탄은 이미 생산한계와 낮은 품질, 낮은 경제성으로 더 이상 북한의 주에너지공급원이 되기 어렵다.

천연가스는 북한에 매장되어 있지도 않을 뿐 아니라, 배관망 및 인수기지 등을 건설해야 하는 설비상의 제약이 있다. 따라서 북한의 개방정책 초기에는 에너지원중 석유의 수요가 가장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중에서도 북한의 경제발전 단계상

산업용 및 발전용 중유의 수요가 가장 클 것이다.

현재 잉여상태에 있는 남한 중유의 좋은 소비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남한은 경질제품 수요증가로 값비싼 고도화설비 건설이 요구된다. 그 투자비를 돌려 북한에서 상압정제 시설을 건설하는데 사용하고 경질제품은 남한에서, 중질제품은 북한이 소비한다면 북한은 석유공급력을 증가하고 남한은 효율적으로 경질제품 수요증가에 대처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북한에 건설되는 정유설비는 석유수요가 급증하는 인접 중국을 향한 수출기지로도 유리하다. 나아가 석유발전소를 건설해 잉여 중유를 공급해 주는 대신에 우리가 필요할 때 값비싼 전력으로 보상받는 경제적인 에너지 교환교류도 가능하다. 남한에서는 환경문제와 높은 석유의존도 때문에 중유사용을 억제하는데 북한에 이러한 중유소비를 부추기는데 대한 비판의 소리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중유는 북한산 석탄과 대체하기 때문에 결코 환경오염도를 높이는 것이 아니며 북한의 석유수요는 거의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석유의존도에 대한 불안도 걱정할 사안이 아니다.

이번 현대의 북한 유전개발은 그 성공여부를 떠나 남북간 석유협력의 촉발제가 되고 나아가 남과 북이 에너지 전반에 걸쳐 다양하고 효율적인 협력을 실시하는 초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